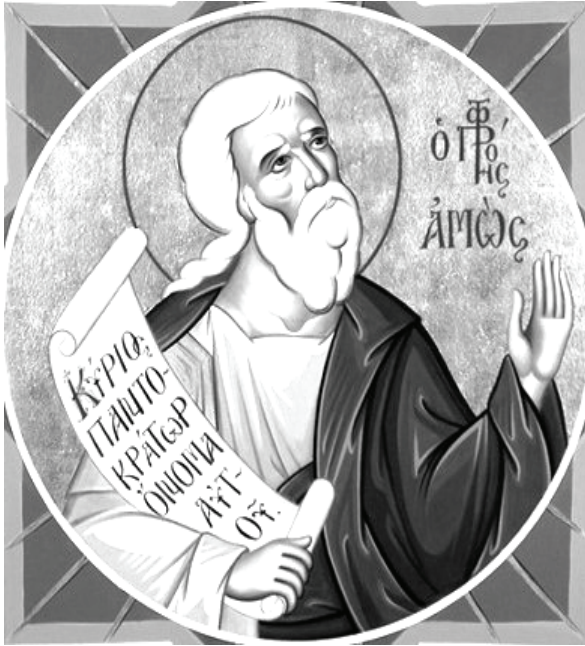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아모스 예언자

제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제6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1, 2, 3응송 / 사도경 79-80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승천 축일 입당송 / 오순절 예식서 79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성 교부들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82

· 성당 찬양송

· 승천 축일 시기송 / 오순절 예식서 80

· 사도경: 사도행전 20, 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요한 17, 1-13 / 261, B 29

· 승천 축일 성모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승천 축일 영성체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아모스 예언자

구약에서 보면 네 명의 대(大)예언자와 열두 명의 소(小)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열두 명의 소(小)예언자 중 가장 첫 자리에 있는 예언자가 우리 교회에서 6월 15일 축일로 기념하는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하며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만족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아모스 9:10)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예언자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도 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 내리리라.”(아모스 9:2)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외적인 힘에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부패하면 재난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과 실천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믿음의 모범이신 성인들의 삶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진리를 위해 세상을 살았으며, 인내와 용기로 믿음을 지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린토 전 11,1) 삶을 모범으로 남겼으며, 그런 삶을 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른 신앙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다 좋은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주관적인 신앙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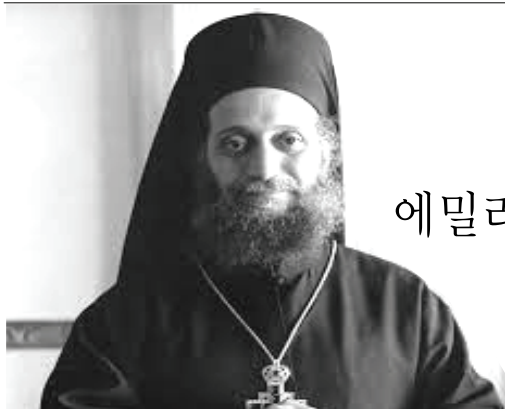
이것의 특징은 신앙을 뭔가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서를 읽었으니까,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거래일 뿐입니다. 주님과 거래하려는 물지각한 자세입니다. 왜곡되고 엇박자를 내는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나뭇의 생각, 도덕, 규범을 정해 놓고, 의롭다, 선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필립비서 2,5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온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천인 것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사제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193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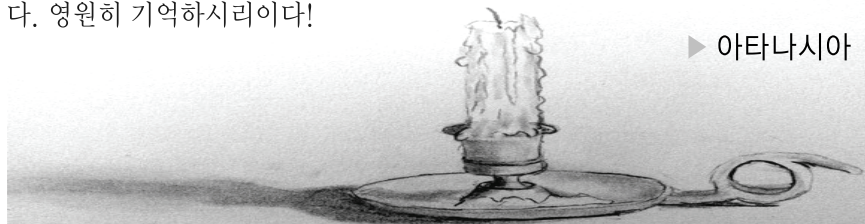
☞ 아래 참조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한 몸이다.
 천국에 계신 고인들과 함께 우리는 한 교회이다.
 만일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싶다면,
 돌아가신 분은 더욱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
 죽은 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며, 만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
 리를 보려한다.
 그들도 대단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언제나 죽은 이를 기억해야한다.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희망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성찬예배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봉헌되어야 한다. 추도식도 행해야하고, 고
 인의 이름으로 자선도 베풀어야한다.
 이 모든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그분
 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세계, 천사들, 성인들
 과 소통하게 된다.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분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향해 희망과 기대감 속에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우리와도 더욱 가까워져서 자신
 들을 위해 추도식을 거행해달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내온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 그 얼마나 큰 감사
 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답례를 하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좋을텐데...!

.....

☞ 아토스 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의 에밀리아노스 원로는 지난 5월 9일 그
 리스 할키디키의 오르밀리아에 있는 성모 희보 수녀원에서 85세로 안식하셨
 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아타나시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6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총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리며, 모든 정교인이 마음을 모아 총대주교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오래도록 정교회를 올바르게 이끄시어 주님의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로만 카프착 사제의 집전으로 세르비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Lena Vucicevic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음식 축제

오는 6월 16일 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봄 야유회

지난 5월 26일 주일 성찬예배 후 교인들이 다함께 방어진 체육공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날씨와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로 즐거운 보냈습니다. 소풍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6월 11일(화) ▷ 성 바르톨로메오스, 성 바르나바 사도, 중국 미트로파니스 치순 순교자와 가족 4인과 222명의 순교자들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 6월 15일(토) ▷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억하는 추도식에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